

‘연패 탈출 시급’ 페퍼스, 도로공사 잡고 재도약 노린다



내일 한국도로공사와 홈경기... 범실 줄이기 관건
‘삼각편대’ 테일러·박정아·이한비 기량 회복 절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한국도로공사와의 안방 경기에서 연패 탈출을 노린다.

페퍼스는 23일 오후 7시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를 상대로 재도약에 나선다.

페퍼스는 지난 12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전에서 승리하며 창단 최초 3연승을 달렸다.

연일 ‘구단 최초’ 기록을 세우며 최고의 시즌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였던 페퍼스지만 4라운드 3·4번째 경기에서 아쉬운 패배를 더하며 제동이 걸렸다.

페퍼스는 창단 첫 ‘구단 최다승(5승)’과 ‘구단 최다 연승(2연승)’ 기록을 일찌감치 갈아치웠지만 16일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2-3), 19일 GS칼텍스 서울Kixx(0-3)에 연달아 패배를 기록했다.

특히 GS칼텍스전에서는 상대의 ‘쌍포’ 실바와 유서연의 맹공에 공수가 흔들리면서 무기력한 셋아웃 패배를 피하지 못했다.

이날 ‘외국인 주포’ 테일러는 공격 성공률 29.73%로 12득점에 그쳤고, 박정아는 1득점(10%)에 범실 3개로 부진했다. 이한비 역시 모든 세트에 출전했지만 7득점(23.33%)과 40.91%의 리시브 효율로 제 실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했다.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GS칼텍스에 셋아웃 패배를 당한 페퍼스는 공격의 활로를 찾고 분위기 반전에 나서야 한다.

현재 8승 14패(승점 25)로 5위인 페퍼스와 맞대결 상대인 6위 한국도로공사(7승 15패·승점 20)와는 승점 5점 차.

상승세가 꺾인 페퍼스에 비해 한국도로공사는 페퍼스에 연패를 안겨줬던 흥국생명과 GS칼텍스에 폴세트 승리를 거두며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이고 있다.

페퍼스의 추락을 막기 위해선 테일러·박정아·이한비로 구성된 ‘삼각편대’의 기량 회복이 절실하다.

최근 자신의 첫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고, 개인 최다인 32득점을 수확하는 등 팀에 완벽히 흡수된 모습을 보였던 테일러와, 역대 2호 6000득점 주인공이 되는 등 위기의 순간 ‘클러치백’의 면모를 발휘했던 박정아의 컨디션 회복이 급선무다.

이번 시즌 전 경기 주전으로 나서며 35.14%의 공격 성공률과 20.49%의 리시브 효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한비도 부진을 끊어내고 ‘신흥강자’ 타이틀을 되찾아야 한다.

페퍼스는 오는 26일에는 11연승 중인 정관장 레드스파이크스와의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한다. 가장 뜨거운 팀을 만나기에 앞서 한국도로공사전에서 승점을 더하고 자신감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23일 한국도로공사와의 안방 경기에서 연패 탈출을 노린다. 지난 19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와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4라운드 경기에서 박사랑(왼쪽)이 공을 띄우고 있다. (KOVO 제공)

‘쇼트트랙’ 김길리·김태성, 토리노 U대회 ‘금빛 질주’

남녀대표팀 1500m 금·은·동

김길리(성남시청)와 김태성(화성시청)이 2025 토리노 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1500m 결승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남녀 대표팀은 1500m 결승에서 모두 금·은·동메달을 휩쓸면서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

김길리는 2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열린 동계 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여자부 1500m 결승에서 2분37초61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이로써 김길리는 이번 토리노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에 첫 번째 금메달을 선물했다.

함께 결승에 오른 서휘민(고려대)이 김길리에 0.371초 뒤진 2분37초985로 은메달을 따낸 가운데 김건희(성남시청·2분38초302)가 동메달을 확보하며 한국 여자 선수 3명이 모두 시상대에 올랐다.

이어 열린 남자부 1500m 결승에서도 한국 선수들의 메달 잔치가 이어졌다.

한국 선수 3명이 결승에 오른 가운데 김태성(화성시청)이 2분27초775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차지했고, 이동현(단국대·2분27초948)과 배서찬(경희사이버대·2분28초087)이 은메달과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22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팔라벨라 빙상장에서 열린 ‘2025 토리노 동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쇼트트랙 여자부 1500m에서 우승한 김길리(성남시청)가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FISU 제공)

커제, LG배 결승 2국서 초유의 반칙패

메이저 세계기전인 LG배 결승전에서 초유의 반칙패가 발생했다.

22일 성동구 마장로 한국기원 신관에서 열린 변상일 9단과 커제 9단의 제29회 LG배 조선훈보기왕전 결승 3번기 2국에서 커제가 두 차례나 ‘사석(死石·파낸 돌) 관리’ 규칙을 위반해 반칙패를 당했다.

이틀 전 열린 1국에서 승리했던 커제는 이날 백번으로 초반 18수 만에 우상귀에서 흑 1점을 따냈으나 사석 통에 제대로 넣지 않았다.

대국은 계속 진행됐으나 백 44수가 착수된 뒤 이 상황을 파악한 유재성 심판이 커제에게 경고와 벌점 2집 공제를 선언했다.

위반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대국장으로 건너와 항의했으나 33분 만에 중국 측이 수긍해 경기가 재개됐다.

그러나 불과 몇십수 뒤 커제가 다시 사석 규정을 위반했다.

커제는 백 80수에 역시 우상귀에서 흑 1점을 따냈다. 하지만 파낸 돌을 또 사석 통에 넣지 않은 채 82수째에 착수하자 변상일이 이의를 제기했다.

상황을 확인한 심판은 커제에게 ‘경고 2회’ 누적으로 인한 반칙패를 선언했다.

중국은 또 이의제기했으나 주최 측은 사전에 한국 경기 규정을 설명한 점과 영상판독으로 커제의 사석관리 위반을 확인한 점 등을 들어 결정을 바꾸지 않았다.

메이저 세계기전 결승전에서 반칙패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기원은 지난해 11월 규칙 개정을 통해 ‘제4장 벌칙’ 조항 18조에 파낸 돌을 사석 통에 넣지 않으면 경고와 함께 벌점으로 2집 공제를 결정했다.

조항 19조에는 경고 2회가 누적되면 반칙패가 선언된다고 명시됐다.

한국 바둑에서는 사석을 계가 때 사용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대국 도중 상대 사석 수를 확인하고 형세 판단을 한다.

한국기원은 이런 개정 내용을 중국 측에 명확하게 알렸으며 지난해 열린 삼성화재배에서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바둑 규칙에 따라 KB바둑리그에 용병으로 참가 중인 중국의 진위정 8단이 최근 대국에서 사석 규칙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 한국과 달리 중국 바둑 규칙에서는 사석이 의미가 없다. 바둑 한국 규칙을 제대로 숙지 못해 반칙패를 당한 커제는 강력하게 항의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커제의 반칙패로 1승 1패가 된 이번 LG배 우승자는 23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최종 3국에서 가려지게 됐다.

LG배 우승 상금은 3억원, 준우승 상금은 1억원이다. /연합뉴스

한용수 광주게이트볼협회장 당선

제3대 광주게이트볼협회장에 보성 검백중 교장 출신인 한용수 후보자가 당선됐다.

지난 20일 광주게이트볼 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협회장 선거에서 3명의 후보자 중 기호 2번으로 출마한 한용수 후보는 전체 선거인 수 26명 중 18표를 받아 당선됐다.

한용수 당선인은 “게이트볼은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특히 중장년층의 체육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며 “현재 광주게이트볼 협회는 5개구에 정회원 600여명이 있고, 비회원까지 합하면 1000여명이 넘는다. 앞으로 더 많은 지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전력을 기울이며 회장으로서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예술의전당 문화산책 Cello Moments 공연 안내